



수입녹용 특소세 현행 유지

- 본회 강력 반발, 없던 일로 일단락 -

폐지될 것으로 확실히 되던 수입녹용의 특소세가 현행 유지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본회는 언론 보도를 통해 내수활성화를 위해 골프용품, 프로젝션 TV, 에어컨 선풍기, 로얄제리 등과 맞물려 녹용의 특소세도 폐지될 전망이다라는 내용을 접하고 강력 반발했다.

본회는 지난 9월초 현재 수입녹용에 부과되고 있는 4.9%의 특소세가 폐지될 전망이다라는 내용을 접하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각각 공문과 전화통화를 통해, "수입녹용에 부과되던 특소세 폐지는 민생경제 살리기와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녹용에 부과되는 특소세 폐지는 "녹용 수입물량만 늘려 외화지출을 부추기고 국산 녹용의 가격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라 주장하고 수입녹용 특소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9월 3일자 공문, 한록협제 04-104~106)

이후 국회 재정경제위는 지난 9월2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프로젝션 TV를 포함한 11개 품목의 특소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한편 녹용을 포함한

13개 품목의 특소세는 현행 유지하기로 의견을 종합했다.

재경위는 녹용을 포함한 13개 품목의 특소세 인하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무관하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를 수용해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 9월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돼 수입녹용의 특소세 폐지 논란은 현행 유지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수입녹용에 부과되는 특소세 폐지는 수입업자 및 뉴질랜드 등을 비롯한 녹용 수입국가에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녹용심포지엄에서 뉴질랜드양륙산업위원회 회장이 본회 김수근 회장에게 녹용 특소세 폐지를 요청한 바 있었다. 또한 올 6월경에는 자국 언론 기관을 통해 올해 안에 녹용 특소세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다.

한편 녹용 특소세 폐지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잇달아 발생,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국양륙**

